

바흐쎈의 크로노토프로 「애러비」 읽기

김 철 수

I. 들어가는 말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1905년 9월 24일 스타니슬로스(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시 그가 출판을 계획했던 열두 편으로 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각 스토리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자매」(“*The Sisters*”)나 「마주침」(“*An Encounter*”)과 더불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소개한 세 번째 단편인 「애러비」(“*Araby*”)는 그 때까지 작품의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작품”(another story)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다(SL 77).

매우 짧은 분량의 단편인 「애러비」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의 누이에 대한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쫓아가던 한 소년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환상의 허상 앞에 좌절하며 “어린 시절의 종말”(Doloff 153)을 맞게 되는 과정을 “이제는 다 자란”(now grown up)(Stone 376) 화자의 서술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조이스 자신의 말대로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과 읽었던 책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과 그것들을 통해 성장해 가는 한 소년의 의식의 흐름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 층위로 엮여져 있다.

조이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실제 살았던 노오스 리치먼드가(North Richmond Street)와 그가 재학했던 크리스천 브라더스 스쿨(Christian Brothers School), 그리고 그가 12세 때였던 1894년 5월 14일에서 19일까지 저비스 병원(Jervis Street Hospital)을 위한 자선 행사라는 명목으로 더블린에서 실시되었던 “더블린의 애러비”(Araby in Dublin)라는 동양 대축제(Grand Oriental Fête) 등의 역사적 배경(Gifford 40-43)과 “성배와 교회 그리고 성모 마리아 등의 중세 로맨스의 이미지”(Mandel 48)를 띠고 있는 중심 구조, 그리고 작품의 초입에서 발견되는 세 권의 책들, 즉 월터 스코트(Walter Scott)의 『대수도원장』(*The Abbot*)과 『경건한 성체 배령자』(*The Devout Communicant*), 그리고 『비독의 회고록』(*The Memoirs of Vidocq*) 등이 담지하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함의의 깊이는 물속에 잠긴 빙산의 몸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편은 표면적으로는 소년기를 거쳐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주인공 소년이 “인생의 불확실성의 원리를 배우는 일종의 통과 의례”(Herring 26)로 여겨져 왔으나, 더 나아가서 개인의 주체성과 욕망 실현이 좌절된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구조적 모순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허영심”이라는 개인적 자질 탓으로 돌리도록 설정된 마비된 현실에 갇힌 무기력한 식민지 소년의 이야기로(임경규 62), 또는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사랑의 은유로 표현한”(심상욱 34)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커쉬너(R. B. Kershner)는 「애러비」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세 권의 책들의 서지정보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그 책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조이스가 이 단편의 구조와 주인공 소년의 성장 배경 및 의식의 흐름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피력함으로써, 이 작품의 행간에 숨겨진 중량감을 강조하고 있다(46-60).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꼼꼼하게 읽으면 마치 한 권의 장편소설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질 법한 이 작품에 대하여 해리 스톤(Harry Stone)은 조이스가 “단순한 어구들과 행위들에 그가 말하는 내용을 심오하고 광범위하게 만드는 다중의 의미들을 부여했다”(405)고 주장하며, 그러한 의미들은 주요 이미지들과 더불어 작품을 하나의 전체로 엮어주는 다양한 패턴이나

인유,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부연한다(405).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며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조이스의 후기 작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알 수 없는 깊이와 낮은 것들의 혼합, 그리고 감질 나는 암시로 가득한 하나의 덧쓰인 양피지로 완성된다”(409)고 설명하며, “「애러비」는 한 어린 예술가의 초상”(376)으로서 “그 예술가 어린이의 본질적 순간”(a quint essential moment)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410).

요컨대 이 단편은 한 소년의 작은 경험이 성인이 되어 중세의 로맨스나 소설의 형식 등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것을 되돌아보는 일인칭 화자의 서술을 통해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개인적인 의식과 경험들 그리고 그 외의 크고 작은 예술적 상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적 의미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 소년의 성장과정의 특정한 단계들에 대한 조이스의 서술의 방식이 미하일 바흐젠(Mikhail Bakhtin)이 ‘시공성,’ 즉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소설의 발생 및 전개 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 착안하여, 작품의 전개 과정과 크로노토프 단계들의 유비관계를 바탕으로 서사문학(Narrative Literature)의 발전 과정으로서 본 단편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II. 크로노토프와 소설의 발전

1. 크로노토프의 개념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를 의미하는 바흐젠의 용어이다. 바흐젠은 마이클 홀퀴스트(Michael Holquist)가 편찬한 『대화적 상상력』(*The Dialogic Imagination*)이라는 책 속에 포함된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Forms of Time and of the Chronotope in the Novel”)이라는 논문에서 그 용어를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¹⁾으로 정의하

고, 서사시의 형식이 소설의 형식으로 발전되는 과정과 또한 고대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소설의 변천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여 “유럽 소설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궤적”(김육동 210)을 탐색하고 있다.

바흐쥰이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이론에서 차용하여 “문학비평을 위한 비유적인 표현”(DI 84)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 크로노토프의 이론은 같은 책에 수록된 「서사시와 장편소설」(“Epic and Novel”)에서 그가 피력한 서사시와 장편소설의 차이에 대한 견해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문학적 서사의 흐름이 한 민족의 서사적 과거와 그에 따른 민족적 전통을 기반으로 당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그리던 “하나의 장르로서의 서사시”(DI 13)에서 “인간과 세계 양자가 일정한 정도로 희극적 친숙성을 띠며 예술적 재현의 대상이 미완성의 유동적인 당대현실의 차원으로 낮춰지는”(DI 39) 소설의 장르로 이동하였음을 강조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다성적, 유기적 세계를 표현하는 소설의 장르에서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로 작용하는 크로노토프는 “작품의 주요한 시간적, 공간적 결과들이 만나는 매트릭스”(Best 292)이자 “이야기의 마디가 뗫어지고 풀어지는 곳”(DI 250)이며, “등장인물들과 주인공들이 ‘사상’과 ‘열정’을 드러내면서 소설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DI 246)하게 되는 하나의 입체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바흐쥰은 이것을 크로노토프의 “재현적 의미”(DI 250)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크로노토프는 평면적인 시간성 위에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공간들을 엮어 입체화된 사건을 구성하고, 작품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이미지를 결정”(DI 85)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관의 차이를 결정”(김육동 209)해 주기도 하는 비평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로노토프는 “작품이 지니게 된 생명의 일부로서 독자의 창조적 인식을 통해 작품을 끊임 없이 쇄신하면서 작품과 그 작품 속의 세계로 침투”(DI 254)하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역사적 공간과의 접촉을 항상 유지하며 작품 속의 삶과 실제적

1) Mikhail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 1981, p. 84. 이후 크로노토프에 대한 논의는 본 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DI로 약술하고 면수만 기록함. 인용문의 번역은 미하일 바흐쥰 지음/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를 참조함.

인 삶 사이의 끊임없는 교환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의 삶의 역사성의 기반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입체적 형상으로서의 크로노토프는 플롯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우연한 만남이나 다양한 종류의 모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풍자와 회의 또는 자기 인식 등의 추상적인 경험들과 그것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장소들을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바흐첸은 이러한 다양한 크로노토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사시적 ‘단성성’의 시대에서 “서로 결코 융합될 수 없고 동일하게 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상호 연관을 갖고 있고 불가분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서로 다른 크로노토프들”(DI 255)로 이루어진 소설적 ‘다성성’의 시대로의 변천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2. 크로노토프와 소설의 전개: 로맨스에서 소설까지

바흐첸은 소설의 역사에서 가장 초기 형태의 장르로 고대 그리스의 로맨스를 꼽고 있다.

고대에는 세 가지 기본유형의 소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이 소설들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예술적으로 포착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나뉜다. 요컨대 세 종류의 소설적 크로노토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 세 유형은 매우 생산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모험소설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DI 86)

이 장르는 소년이 소녀를 만나 사랑의 신이나 운명의 신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시련을 겪은 후 결혼에 이르게 되는 “시련의 모험 소설”(DI 86)과 육체적 변신으로 인해 발생된 예기치 않은 모험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을 다룬 ‘일상생활의 모험 소설’(DI 111) 그리고 자신의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비판적인 회의의 단계를 거쳐 자기 인식의 단계에 이른 다음 마침내 전통적인 지식의 세계에 도달하는 주인공을 다룬 ‘전기적 소설’(DI 130)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단계인 기사도 로맨스의 크로노토프에 대하여 바흐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사도 로맨스의 크로노토프는 그리스 로맨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낮설고 다

양하며 다소 추상적인 세계의 크로노토프이다. 또한 주인공들(그리고 사물들)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기본적으로 사랑에의 성실성에 대한 시험과 기사도적 규범의 요구에의 충실성에 대한 시험-이 마찬가지로 구성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들-예컨대 잘못 추정된 죽음이나 인지/비인지, 변성명 등과 같은-또한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DI 150)

바흐젠은 그리스 로맨스의 주인공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험을 “마치 천상으로부터 보내어진 재앙이라도 되는 양”(DI 152) 애써 견뎌내려고 노력하고, 기사도 로맨스의 주인공은 그러한 모험을 자신의 천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곧두박질 치듯 모험 속으로 뛰어든다”(DI 152)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 로맨스의 주인공과 중세 기사도 로맨스의 주인공이 모험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든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내리는 신 중심의 세계관과 자신의 모험을 통하여 “자신을 영예롭게 하는 동시에 타인(그의 주군과 주군의 부인)을 영예롭게 하는”(DI 153) 좀 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흐젠은 다시 이와 같은 기사도적 로맨스에서는 “모험적 시간 속의 기적적인 세계”(DI 154)라는 크로노토프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 “시간은 길이가 늘어나는가 하면 며칠이 순간적으로 압축되기도”(DI 154)하는 등 “시간의 주관적인 조작”(DI 155)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운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초기 기사도 로맨스의 이와 같은 특징은 그 주인공들을 “개별화”(DI 153) 시키고 “상징적”(DI 153)으로 만들어서 이 로맨스를 “서사적 모험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 특징”(DI 153)을 갖게 되지만, 바흐젠은 이와 같은 운문 로맨스가 후기의 산문 로맨스로 발전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DI 155).

계속해서 바흐젠은 중세 시대 지배 계급의 문학에 속했던 기사도 로맨스와 더불어 민속에 기반을 둔 하층민의 문학이라 할 수 있는 풍자와 패러디의 형식을 소개한다. 이 장르들은 이후 유럽 소설의 발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세 가지 인물의 유형을 등장시키는데, 그들이 바로 “악한”(rogue)과 “광대”(clown)와 “바보”(fool)이다(DI 158).

그중에서도 악한은 그를 현실에 묶어두는 일정한 유대를 그나마 아직 간직하고 있는 반면, 광대와 바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때문에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들의 웃음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특징을 담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재확립한다. 이러한 등장 인물들의 전체적인 존재는, 결국 전적으로 표면 위에 드러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광장으로 소환된다는 것이다. (DI 159-60)

요컨대 그리스 로맨스로 시작하여 중세의 기사도 로맨스를 거쳐 풍자와 패러디에 이르는 바흐쥰 식의 소설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크로노토프는 과거에서 현재, 천상에서 지상, 정신성에서 물질성, 그리고 고급성에서 저급성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일반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소설적 크로노토프의 발전은 성스러운 것을 속화시키는 “꼼꼼하리만치 천박한 문체”(Selected Letters 83)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더블린의 치부를 들춰냄으로써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Selected Letters 83)을 기록하고자 했던 조이스의 의도와 다분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크로노토프의 개념을 바탕으로 「애러비」를 다시 읽는다면, “창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해의 대상 바깥에, 즉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바깥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Speech Genre 7)는 바흐쥰의 주장처럼, 어린 시절의 한 순간의 허망한 경험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는 서술자의 연술을 통해 “시간-공간의 관계라는 윤곽 속에 박혀있던 과거 의미”(Sandywell 205)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재활성화 하는 한 편의 소설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I. 「애러비」속에 구현된 크로노토프

「애러비」를 구성하는 크로노토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막다른 골목’의 폐쇄성과 죽은 신부와 그 집의 분위기가 암시하는 단성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서사시의 시대’와 수업에서 해방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소년과 맹건의 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로맨스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건의 누이와 일대일로 진행되는 로맨스를 벗어나서,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소년이 온몸으로 겪어가는 ‘다성적 소설

의 시대'의 순서로 전개되어 간다.

1. 서사시의 시대와 그 종말

「애러비」의 주인공 소년은 타락과 마비의 중심으로 보이는 노오스 리치먼드가의 “막다른(being blind)” 골목에 위치한 “괴괴해진 공기가 방마다 감돌고 [...] 낡아서 폐품이 되어버린 종인들이 어지러이 널려있는”²⁾ 집에서 살고 있다. 그는 바로 직전의 단편인 「마주침」(“An Encounter”)의 주인공들처럼 자신들의 호기심과 뚫어오르는 혈기를 “엄숙한 수업시간(sober hours of school)”(*D 20*)에 저당 잡힌 채, 갈색의 눈먼 도시에서 조용하고 점잖게 살 것을 은연중에 강요당하고 있는 더블린의 아이들 중 하나이다. 작품의 첫 장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우울하고 수동적인 배경은 신부가 살던 집과 그의 삶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이어진다.

집 뒤에 있는 황폐한 정원에서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관목 몇 그루가 멋대로 자라고 있었고, 나는 그 중 한 그루 아래에서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전 거주자의 녹슨 자전거핌프를 찾아냈다. 그분은 매우 온정이 넘치는 신부였는데, 유서를 통해 가진 돈 전액을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가구는 누이에게 물려준 터였다. (*D 29*)

스톤은 이 집의 뒷마당이 “황폐화된 에덴동산과 인간의 타락과 선악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동산 중앙의 사과나무를 강하게 암시하는 이미지”(381)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폐쇄적인 집 안의 분위기와 한때 자전거에 바람을 넣듯 에덴동산의 거주자들에게 욕망을 불어넣었던 뱀을 연상하게 하는 핌프가 사과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건물 밖의 풍경, 그리고 그 집에 살다가 죽은 그의 ‘자비심’이 진의가의 의심되는 신부 등은 마비의 도시 더블린이 미래의 예술가인 소년에게 떠넘겨 준 일종의 “무의식적 유산”(Kershner 46)으로서, 이 소년이 넘어서게 되는 서사시적 세계의 크로노토프라 할 수 있다.

2) James Joyce,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Scholes, Robert and Litz, Walton A.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p. 29.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 서에 의거하여 괄호 안에 *D*로 약술하고 면수만 기록함. 인용문의 번역은 제임스 조이스 저, 이종일 옮김, 『더블린 사람들』(서울: 민음사, 2012)을 참조함.

뿐만 아니라 죽은 신부의 방에서 소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세 권의 책들도 역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대변하는 서사시적 단성성의 종말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가톨릭의 사제가 소유했을 것 같지 않은”(Kershner 48) 것으로 여겨지는 이 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은 사제의 신앙적 경건성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단편에서 “전 거주자”(D 29)라는 익명으로 등장하는 죽은 신부는 신체적, 정신적 마비를 상징하는 「자매」(“The Sisters”)의 플린 신부(Father Flynn)나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마주침」(“An Encounter”)의 버틀러 신부(Father Butler)와 더불어 더블린의 종교적 타락 혹은 마비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데, 특히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제목과 세속적인 내용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것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성직매매”(D 9)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톤은 종교적인 제목 하에 성녀이자 창녀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스코틀랜드 출신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Mary Stuart of Scots)을 다룬 책(『대수도원장』)이나 성직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개신교의 성직자인 아벳느고 셀러(Abednego Seller)가 쓴 고난주간(Holy Week) 안내서(『경건한 성체 배령자』), 그리고 악명 높은 범죄자이자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쓴 회고록(『비독의 회고록』) 등의 서적들이 “소년의 혼란을 객관화”(Stone 380)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 책들은 신부라는 종교적 직책이 상징하는 단성적이고 권위적인 서사시의 크로노토프가 낭만적인 유형의 새로운 크로노토프에 의해 대체되는 장르적 변혁의 전조로 읽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억압적인 학교의 수업이 끝나야 학생들이 자유로워지고, 신부가 죽은 후에야 그의 묶여있던 재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된 것처럼, 부패한 종교와 물질주의 그리고 허세가 가득한 기성세대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권위적이고 단성적인 질서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소년의 낭만적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습하고 우울한 배경을 설명하는 처음 두 문단이 끝난 후, 밤기운을 틈타 혈기를 방출하는 소년과 동료 아이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이제 서사적 세계의 종말과 로맨스라는 새로운 크로노토프의 출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우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수시로 변해 가는 보랏빛이었고, 그 방향으로 가로등들은 희미한 등불을 반쳐 들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얼얼해도 우리는 몸이 후끈후끈해지도록 놀았다. 우리의 외침 소리는 고요한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한참 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가난한 골목에 사는 난폭한 패거리들이 기습을 해 오는 집 뒤의 어둡고 좁은 진흙길을 지나, 재 피는 곳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컴컴하고 흠뻑 젖은 정원의 뒷문으로 갔다가, 마부가 말을 쓰다듬고 빗질하거나 췌석 채운 마구를 딸랑딸랑 흔들어 대는 컴컴하고 냄새 고약한 마구간까지 이르렀다. (D 30)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만나서 뛰노는 시간에 더블린의 우울한 대기는 “수시로 변해가는 보랏빛”(D 30)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의 아버지가 외눈 안경을 끼고 “옛날 옛적 아주 호시절”(P 7)이라는 “절대적 과거”(Bakhtin 34)를 지향하며 “아기 터쿠(Baby Tuckoo)”(P 7)에게 불러주던 야생의 장미에 대한 노래가 어린 스티븐의 입을 통해 “녹색의 장미(green wothe)”(P 7)라는 자신만의 노래로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막다른 길로 막혀있는 조용한 거리에서 “차분한 갈색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고”(D 29)있던 도시는 “몸이 후끈후끈해지도록”(D 30)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가 넘치는 색조를 덧입게 되고, 스토리는 규율과 억압을 상징하는 단정적인 서사시의 세계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남녀 간의 에로스적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는 로맨스의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2. 로맨스의 시대

맨델(Mandel)은 단편 소설인 「애러비」의 구조가 정확하게 중세 로맨스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전통은 『오디세이』(*Odyssey*)라는 서사시의 구조 속에 기록한 『율리시스』(*Ulysses*)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48). 계속해서 맨델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중세 로맨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그 다섯 가지의 패러다임이란, 첫째, 주인공의 성년기에 이르기 전 어린 시절(*enfance*), 둘째, 주인공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여성(*the lady*)의 등장, 셋째, 임무

수행을 위한 탐색(a quest), 넷째, 다양한 방해물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탐색의 여정(the journey),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탐색의 성공적인 완수(the completion)와 그에 따른 보상(the reward) 등이며, 그러한 패러다임들이 「애러비」에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48).

맨델의 패러다임들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름 없는 소년의 복잡한 육체적, 심리적 경험들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나름대로의 크로노토프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소년은 죽은 신부가 남겨준 물리적, 심리적 유산과 삼촌과 숙모의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형편,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음울한 환경 속에서 맹건의 누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연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 집 문 반대편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꼭선을 그리는 누나의 하얀 목에 내려앉아, 그 위에 늘어 뜨러진 머리칼을 비추고, 그 아래로 난간 위에 놓인 손을 비추었다. 불빛은 누나의 옷 한쪽으로도 내려와 누나가 편한 자세로 서 있으면서 살짝 내비치게 된 속치마의 흰 테두리를 비추었다. (D 32)

그는 사실상 성적인 호기심과 다름없는 자신의 연정을 성배 수호의 담론으로 위장한 채,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물 무릅쓰고 끝내 애러비 시장에 도착하여 임무 완수를 위한 탐색을 하던 중,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거기서 타자화 된 자신을 통해 현실을 자각하면서 여정을 끝내게 된다.

외견상 이 작품에는 ‘역경을 극복한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은 없지만, 에로스(Eros)의 화살을 맞은 소년이 친구의 누이에 대한 일방적인 연정을 느끼고서, 그것이 주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치 천상으로부터 보내진 재앙이라도 되는 양”(DI 152) 견뎌내는 모습이나,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된 뼈아픈 자각을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바흐찐이 말하는 그리스 로맨스의 크로노토프를 찾아낼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소년에게 있어서 맹건의 누이는 구체적인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즉 ‘불빛에 비치는 윤곽’이나 ‘갈색의 형체’로 다가온 맹건의 누이는 “때로는 이상한 기도와 찬송”의 내용 속에, “때로는 무언가가 심장에서 솟구쳐 가슴속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소년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고, 마침내 소년

의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은 하프와 그 하프의 현을 타는 (여신의) 손가락으로 변형하게 된다: “그러나 내 몸은 하프와 같았고, 누나의 말과 몸짓은 그 하프 현을 타는 손가락 같았다”(D 31).

또한 이 작품 속에는 이루지 못할 연정이 자신의 천성인 것처럼 “곤두박질치듯 모험 속으로 뛰어드는”(DI 152) 소년의 모습과 그러한 모험을 통하여 맹건의 누이에게 약속을 지켜 그녀를 “영예롭게” 하고, 또 그러한 자신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영예롭게”(DI 152)하려고 애쓰는 소년의 시공간에서 바흐쥘 식의 ‘중세 기사 로맨스’의 크로노토프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누나의 모습은 낭만과는 아주 동떨어진 장소에서조차 나를 따라다녔다. 아주 머니가 장을 보는 토요일 저녁이면 나는 장바구니 몇 개를 들고 따라다녀야 했다. 술 취한 남자들과 흥정하는 여자들에게 치이면서 불빛 휘황한 거리를 비집고 다니다보면, 노동자들이 욕하는 소리며, 돼지 불살을 넣어 둔 나무통 곁을 지키고 선 상점 아이들이 연신 귀 따가운 고향으로 물건 파는 소리며, 오도 노반 로사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모두 오라」나 우리 조국의 고난을 담은 민요를 흥얼거리는 거리 가수들의 콧소리 따위에 둘러싸였다. 이 소음들은 내 생활에 단 하나 뿐인 감흥으로 수렴되어, 내가 한 무리의 적을 뚫고서 성배를 고이 모시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맹건네 누나의 이름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기도와 찬송을 하는 동안 수시로 내 입술로 튀어나왔다.

(D 31)

고대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운명의 화살을 맞고서 우연한 기회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중세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숙녀를 위한 거룩한 임무를 띠게 된 소년의 여정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거센 방해와 제지를 받게 된다. 예컨대 맹건의 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소년에게 말을 걸어와 애러비 시장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을 소년의 의식 속에 심어주게 되는데, 정작 그녀는 “은팔찌를 계속 돌리며 자신이 다니는 수녀 학교에서 있을 피정 때문에 애러비 시장에 함께 갈 수 없다”(D 32)고 말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종교의 틀에 갇혀 개성의 발현을 억압당하며 무기력한 순환만을 계속하는 아일랜드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잊고 늦은 밤에야 술에 취해 돌아오는 아저씨 역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일랜드의 가장의 표상이며 더 나아가서는 소년의 조국 아일랜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귀가가 늦어지는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년에게 “시장에 가는 일을 우리 주님의 밤 이후로 미루어야 할 것”(D 33)이라고 타이르는 숙모의 충고 역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교회의 규율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은 작품의 말미에서 소년의 “이상적인 로맨스”(Kershner 65)를 파괴시키고, 그에게 식민지적 현실을 깨닫게 해 주는 상인들의 “영국식 악센트”(D 35)와 더불어, 『초상』에서 스티븐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물”(P 203)일 뿐 아니라 로 맨스 주인공의 거룩한 여정을 방해하는 시련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연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확률보다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소년은 중세 기사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곤두박질치듯 모험 속으로 뛰어”(DI 152)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의 주관적인 조작”(DI 155)까지 경험하게 된다.

그날까지 남은 날들을 쓸어내 버리고 싶었다. 학교 공부가 짜증스러웠다. 밤이면 침실에서 낮이면 교실에서, 책을 읽으려고 애쓰는 내 눈앞에 맹건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애러비’라는 단어의 음절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정적을 뚫고 나타나 동방의 매력을 발산했다. (D 32)

이처럼 자신이 ‘연인’으로 설정한 맹건의 누이를 “영예롭게”(DI 153)하기 위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소년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주관적으로 조작되어 ‘애러비’는 단순한 시장의 개념에서 답답한 현실적 시간을 초월한 ‘매력적인 동방’이라는 크로노토프로 발전된다.

3. 다성적 소설의 시대

바흐첸이 말하는 다성성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자 하는 작가의 저작의도가 다른 여러 개별적인 담론의 주체들의 담화 속에 파묻혀서 그 카리스마를 상실하고 오히려 작품 내의 투쟁 혹은 경쟁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공격 속에 노출”(김철수 443)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설 작품 속의 다성성은 “악한”과 “광대,” 그리고 “바보”(DI 158) 등이 등장하는 풍자와 패러디를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의 광장을 형성하며, “결코 융합될 수 없고 동일화 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상호 연관을 갖고

있고 불가분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서로 다른 크로노토프들”(DI 255)의 결합을 구현하게 된다.

「애러비」의 종반부는 소년의 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던 ‘매력적인 동방’의 크로노토프가 소년이 방문하게 되는 실제 ‘애러비’의 크로노토프로 연결되어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 먼저 자신의 연인과의 약속에 몰두하느라 학생으로서의 “진지한 일과”를 “흥하고 따분한 어린애 놀이”(D 32)로 여기던 소년에게 화자는 그러한 연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아이들의 고향 소리가 작고 회미하게 들려왔고 나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멍건네 누나가 사는 어두운 집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서 있기를 한 시간이나 되었을까. 보이는 거라곤 딱 하나, 곡선을 그리는 목과 난간 위에 놓은 손과 드레스 아래로 드러난 속치마 테두리에 등불 빛을 아스라이 받고 있는, 내 상상력이 빚어낸 갈색 옷의 형체뿐이었다. (D 33)

여기서 화자는 현실과 환상 속에서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자신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형체’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예시하는 전조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영리 목적의 고리대금”(Stone 395)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머서 부인(Mrs Mercer)이나 종교적인 이유를 대며 소년의 ‘애러비’ 행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숙모,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채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로 소년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아저씨 등은 마치 「자매」의 코터 영감(Old Cotter)이나 「마주침」의 괴짜 노인처럼 주인공 소년의 기다림을 더욱 지루하게 만들면서, 견디기 힘든 소년의 시련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악한’이나 ‘광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겉으로 무책임해 보이는 삼촌이 소년에게 「말과 작별하는 아랍인」(*The Arab's Farewell to His Steed*)라는 시를 아는 지 묻고, 그 앞 소절을 아주머니에게 읊조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속마음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돈과 바꿔버렸음을 애통해 하는 그 시의 내용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삼촌이 조카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 뭔가

귀중한 것을 팔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의지해왔던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Stone 396)는 이 작품의 주제와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울화통이 터질 만큼 지체하고 나서야”(D 34) 출발하여 폐장 직전인 “열시 십 분 전”(D 34)에야 목적지에 도착한 애러비 행 열차, 소년의 욕망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 귀에 거슬리는 남녀 점원들의 영국식 억양, 그 크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항아리들”(D 35)은 지금까지 그를 끈질기게 유혹하던 신기루에서 이제는 그의 접근을 경계하는 “동방의 파수병”(D 35)으로 태도를 바꾸어 철저히 그를 조롱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와 같이 홀로 선 주인공 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독자로 하여금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종교와 제도 및 정치적 억압의 기제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목소리들은 바흐첸이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 문제』(*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다성적 성격을 예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68)의 일환이며, 또한 유아론적 욕망의 단성성에 간혀있던 소년으로 하여금 성숙한 자제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다성성’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이해될 수도 있다.

작품의 다성적 성격이 극대화 된 이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러로서 성인이 된 서술자를 포함하여 “그를 현실에 묶어두는 일정한 유대를 그나마 아직 간직하고 있는”(DI 159) 악한들에게 둘러싸인 주인공 소년은 결국 광장에 소환된 바보가 되어 자신에 의해 조롱당하는 몹시 씩씩한 결말을 맞게 된다.

그 째깍한 속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영심에 쫓기다 꼴불견이 되고 만 푼수 같은 내 모습에 두 눈이 참담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D 35)

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친구 누이에 대한 연정을 확인하고 전달할 기회를 좌절당한 어린 소년이 겪은 이 “우주적인 감정”(임경규 49)은 여러 학자들의 지적대로 턱없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흐첸의 크로노토프의 전개 과정에 따라 이 작품을 분석하였을 때, 이 부분은 성인이 된 작가가 작품 속 주인공인 자신을 객관화하여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성적 장면’(polyphonic scene)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성인이 된 화자가 황량했던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허무했던 첫 사랑의 경험을 회고하며 기록한 일종의 ‘성장소설’로서의 「에러비」는 매우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층위의 역사적, 사회적, 문학적 요소들로 인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는 작품이다. 실제로 이 작품 속에는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같은 이름의 동양 축제를 매개로 한 조이스 자신의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경험들이 융합되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 더블린의 종교와 사회문화 및 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편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인공 소년의 성장기 경험들의 다양한 층위와 단계들이 바흐찐이 소위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자 했던 유럽 소설의 발달사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 속에서 크게 세 단계, 즉 서사시의 종말과 고대 그리스와 중세의 로맨스의 발흥 단계를 거쳐 다성적 소설의 단계로 전개되는 크로노토프의 발달 과정들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로 이 작품에서는 “소설은 다른 장르들을 패러디”함으로써 “그것들의 형식과 언어의 상투성을 폭로하며, 어떤 장르들은 떼어내고, 또 어떤 것들은 자신의 독특한 구조 속에 편입시켜 재정식화하고 재강조한다”(DI 5)는 바흐찐의 주장처럼, 시종 고대 그리스와 중세 기사도 로맨스의 양식들이 일종의 패러디 형식으로 차용되어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이루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에러비」는 조이스의 전 작품을 통하여 권위주의나 부패 또는 마비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신부의 죽음과 황량한 집터에 대한 묘사를 통해 권위적 단성성의 세계와의 종말을 고하면서 그 첫 발을 내디딘 후, 제도와 기관의 감시와 억압에 억눌려있던 혈기를 분출하는 청소년기 활동을 서술하며 낭만적 반동의 징조를 보여주고, 그러한 반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로맨스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담론들의 각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자각의 과정들을 다양한 크로노토프의 형식들을 통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밀하게 짜여진 시공간의 복합체로서의 크로노토프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시기들에 속하는 현상들이 문학작품 속에 공존”(DI 85)할 수 있는 틀의 역할을 함으로써,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이 짧은 단편 안에 재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서의 「애러비」에 적용된 이와 같은 크로노토프의 개념은 외형상 무질서해 보이는 소설의 경험들 속에 질서를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사소하기 그지없는 사건이나 사물들 속에 담긴 함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비록 한 편의 지극히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 형식 속에서 잘 압축된 장편 소설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학 예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철학적 양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인용문헌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1.
- 김철수. 「다성적 소설로서의 『걸리버 여행기』」. 『인문학연구』, 제51집, 2016, pp. 437-66.
- 심상욱. 「『애러비』의 탈식민성: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조이스의 은유」. 『제임스조이스저널』, 제15권 1호, 2009, pp. 33-49.
- 임경규. 「마비된 도시와의 사랑: 『애러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 『제임스조이스저널』, 제19권 1호. 2013, pp. 49-65.
- 바흐전, 미하일.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92.
- 조이스, 제임스.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옮김, 민음사, 2012.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Edited by Michael Holquist, transla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U of Texas P, 1981. Abbreviated as *DI*.
- _____.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Translated by Caryl Emerson, U of Minnesota P, 1984.
- _____.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Edi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translated by Vern W. McGee, U of Texas P, 1986.
- Best, Jenice. "The Chronotope and the Generation of Meaning in Novels and Paintings." *Criticism*, vol. 36, no. 2, 1994, pp. 291-316.
- Doloff, Steven. "Closing Time: 'ten minutes to ten' and the End of Childhood in Joyce's 'Araby.'" *JJQ*, vol. 49, no. 1, 2011, pp. 153-54.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U of California P, 1982.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UP, 1987.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Walton A. Litz, Viking Press, 196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Chester G. Anderson, Viking Press, 1968.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1986.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75.
- Kershner, R. B. *Joyce, Bakhtin, & Popular Literature*. North Carolina UP, 1989.
- Mandel, Jerome. "The Structure of 'Araby.'" *Modern Language Studies*, vol 15. no. 4, 1985, pp. 48-54.
- Sandywell, Berry. "The Shock of the Old: Mikhail Bakhtin'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ime and Alterity." *Bakhtin and the Human Science*, edited by Michael Mayerfeld Bell and Michael Gardiner, SAGE Publications, 1998, pp. 197-213.
- Stone, Harry. "'Araby' and the Writings of James Joyce." *The Antioch Review*, vol. 25, no. 3, 1965, pp. 375-410.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Farrar, Straus & Giroux, 1959.

Abstract

Reading “Araby” through Bakhtin’s Chronotope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reread “Araby,” the third story of James Joyce’s *Dubliners*, in the light of Mikhail Bakhtin’s concept of “Chronotope,” invoked from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to arrange the development of European novel from the ancient Greek and Medieval chivalric romances, and prose works with polyphony. From the chronotopic viewpoint, the story seems to develop in three stages such as “The end of the monologic epic” presenting the death of a priest, a symbol of authority, corruption and paralysis in Dublin, “The era of romances” focusing on a boy’s clandestine romance following the chronotope of Greek and Medieval romances, and finally “The era of the polyphonic novel,” in which the boy’s discourse, after being transferred from the chronotope of Araby as a fantasy to that of the real world, conflicts with plenty of hostile counterparts around him, manifes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olyphonic novel, in which the narrator plunges into the narrative, sometimes parodying and ridiculing his young self by means of a disillusioning epiphany. As such, the concept of the chronotop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a short story may help the reader find a specific order and significance in the story and make more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work through diverse themes such as politics, psychology and philosophy.

■ Key words : Joyce, *Dubliners*, “Araby,” Bakhtin, Chronotope, Greek romance, chivalric romance, polyphony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애러비」, 바흐첸, 크로노토프, 그리스 로맨스, 기사도 로맨스, 다성성)

논문접수: 2017년 4월 27일

논문심사: 2017년 5월 31일

게재확정: 2017년 5월 31일